

<한·중 FTA 대비 양념채소류 중국출장결과 보고 >

I. 출장 목적 및 일정

1. 출장목적
2. 출장일정

II. 주요 출장 결과

1. 산동성 개요
2. 주요 현지 조사 내용
 - (1) 방문업체 개요 및 현황
 - (2) 양념채소류 중국 현황
 - (3) 한·중 FTA관련 중국 연구현황 및 결과

III. 종합

1. 시사점
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양념채소류 산업의 영향

I. 출장 목적 및 일정

1. 출장목적

-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우리 농산물의 수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시장조사
-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 현지조사를 통한 FTA에 대한 이해제고 및 협상전략 마련

2. 출장일정

일 정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7.23(월)	출국 (인천공항) 중국 마늘, 양파, 고추 수출 업체 방문	인천 → 청도 청도
7.24(화)	청도 청양채소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금향 마늘, 양파 수집상 방문	청도 금향
7.25(수)	금향 마늘 도매시장 방문 청도 대형 유통매장 방문	금향 청도
7.26(목)	청도농업대학 방문, 중국 모니터요원 간담회 한국식품 수입업체 간담회	청도
7.27(금)	청도 한중식품연구소 방문 입국 (인천공항)	청도 청도 → 인천

II. 주요 출장 결과

1. 산동성 개요

- 면 적: 156,700km²(남한면적의 약 1.6배, 중국의 각 성중 20위)
- 인 구: 94백만명(2008년 현재 중국 성중 2위, 한족 99.3%, 화족 0.5%)
- 성 도: 지난(濟南)

- 주요도시: 칭다오, 빈저우, 더저우, 둥잉, 허쩌, 지닝, 라이우, 랴오청 등
- 기 후: 온대 대륙성 기후와 온대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봄과 가을이 비교적 짧고 겨울과 여름이 길며 성내 각 도시간 온도 차이가 큼. 동서부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크며, 보통 7-8월에 집중됨. 연간 평균온도는 11-14도이며 평균 강수량은 550-950mm
- 지 리: 대체로 평평한 지형으로 성의 북서, 서, 남서부는 화북평원의 일부이다. 산둥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며 1. 반도부는 성의 동쪽으로 라이저우만과 자어저우만을 연결하는 자오웨이주와 서쪽의 산둥반도로 해발 200미터 전후의 구릉지대이 2. 서쪽 평원구는 황하 이북의 화베이 평원의 일부를 이루는 황하 하류부의 평원 3. 중앙 산지는 타이산, 루산, 이산 등 해발고도 400미터 전후의 산지로 동쪽의 산둥 구릉은 황해의 섬이었으나, 충적 작용으로 대륙과 연결됨
- 화폐단위: 위안 (\$1=약 6.38위안) (2012. 08월 현재)



그림 1. 중국내 산둥성 위치 및 산둥성 주요 행정구역

2. 주요 현지 조사 내용

(1) 방문업체 개요 및 현황

가) 중련농산

- 2002년도에 창립한 업체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우엉 등을 수집하여 중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는 업체
- aT 입찰에 매년 참가하며 농약관리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 위한 농가관리를 통해 수출시 반송사례는 없음
- 고추 수출 경력은 2년이며, 중련농산 취급 물량 중 한국 수출물량은 고추 80%, 마늘 80%, 양파는 향후 수출 준비 중



양파 저장창고 전경



2011년산 저장양파

나) 영륜식품유한공사

- '11년도 영륜식품의 고추 취급물량 중 50% 한국 수출, 양파는 취급하지 않음.
- * 나머지 50%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로 주로 수출



마늘 소포장 작업중인 모습



2011년산 건고추 저장창고

다) 천상식품유한공사

- 고추, 양파, 참기름, 땅콩유, 옥수수유, 대두유, 밀가루 등 취급
- 고추(다대기 및 건고추)를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업체
- * 청산식품 건고추 취급물량의 60%수준 한국 수출, '12년도 한국 수출 물량은 고추 다대기 5,000톤, 건고추 2,000톤(절편압착 건고추 수출단가는 톤당 3,800~3,900\$, 마른 통고추 수출단가는 톤당 2,800\$)
- * 청산식품 연간 매출액 10억 위엔(기름 매출액 6억 위엔)



천상식품의 HACCP 인증서

라) Good Farmer(가농식품유한공사)

- 2002년도 부터 마늘 수출업무 시작, 현재 마늘을 입고 중
 - * 중국에서 마늘 취급물량이 가장 많은 업체(중국 수출량의 1/10수준 수출)
 - * '11년도 중국의 마늘 수출물량 1위
- 중국에서 생강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 대형 도매시장에 과일 야채 판매사업 추진 중



가농식품 저장창고 전경



가농식품의 2012년산 마늘

마) 금향 마늘도매시장

- 도매시장 상장거래가 아니라 농업인(또는 수집상)과 저장·유통업체간 직거래 실시
 - 금향 도매시장은 마늘 상회가 약 1,000개 수준 밀집
 - 거래 물량은 연간 100만 톤 수준 거래(중국 생산량의 1/3수준)
 - 5톤 차량단위 상차한 상태에서 직거래, 차량 계근을 실시
 - 규격 구분 없이 거래되나 대부분 직경 5cm이상으로 5.5cm이상 비율이 50% 수준
 - * 금향 도매시장 거래 물량 통계는 기록하고 있으나 거래 금액 기록은 관리하지 않음('12.7.24일은 5톤 차량 약 800대 출하)



금향 마늘 도매시장 전경



거래대기 중인 마늘

바) 청도 청양재래시장

- 아파트 인근 소매시장으로 20개 점포가 분포되어있으며, 소포장 없이 박스 혹은 벌크포장 상태에서 무게 단위의 소매로 판매.
- 채소류 판매가격은 대형유통매장 대비 평균 1/2~2/3수준임.
 - 마늘 500g당 6위엔, 양파 5.5위엔, 파 2.5위엔, 생강 2.0위엔, 배추 1.3위엔(포기당 2.5kg, 6.5위엔)



청양재래시장 전경



재래시장 내부

사) JUSCO

- 1996년 설립된 일본계 슈퍼마켓으로, 일본 유통업체인 이온(AEON)이 운영하고, 산동성 내에 총 8개의 점포를 운영함.
- 청도 내 가장 인기 있는 슈퍼마켓 체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음.
- 최근 한류 바람과 함께 한국 가공 농식품(유제품, 김치, 과자 등) 판매량 급증함.



JUSCO내 한국식품 진열 모습



농산물 진열모습

아) Hisense-plaza

- Hisense 그룹은 중국 최대 기업집단 중 하나로 1969년 설립된 후, 멀티미디어, 가전, 통신, 유통 등을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함.
- 채소, 과일류는 소포장, 유기 채배 산물을 주로 취급하며, 최근 중국인들의 농식품 안전성 추구 경향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의 판매가 급증함.



Hisense 내 식품매장

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청도연구소

- 2010.5.7일 설립, 14개 CJ, 농심 등 한국의 대기업이 출자
- 2011.8.22일 식약청의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직원 11명)
- 한국 수출 농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업무 추진
 - 검사기관 지정이후 현재까지 약 300건의 농식품 성적서 발급(80% 신선농산물, 20% 가공품 등)
- * 잔류농약, 식품 용기 등 중금속 검사, 보존료, 곰팡이 독소, 미생물 검사 등 업무 추진과 중국 농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2,300건) 사업 추진
- * 사전 검사성적서 제출시 한국에서 검사를 면제받아 수입국 도착이후 검사 불합격품의 폐기·반송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
- * 2001년 발족한 청도 식품음료협회가 발전하여 12.5월 산동식품기업협회를 발족(30개의 한국 식품 수출기업 참여)
 - 중국의 농지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2) 양념채소류 중국 현황¹⁾

가) 고추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며, 작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가 생산비는 연간 5%수준 상승 추세이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14.7% 상승(언론 보도)
 - * 신강지역 건고추 생산비는 200평(1무)에 2,200위엔(340\$) 수준
 - * 인건비는 지난해 70~100위엔(11~16\$)/1일 수준(인건비 3회 인상됨)
 - * 호당 고추 재배면적은 0.1ha수준('08년 기준)
 - 고추 생산량은 200kg/200평(1무) 수준이며, 주산지에서 꼭지 붙은 상태로 톤당 8,500~10,000위엔(1,350~1,550\$)에 거래(수출업체)
 - * 고추 거래가격은 5.4~6위엔/kg, 고추씨는 3.1~3.2위엔/kg에 거래되며 고추씨 수출가격은 FOB기준 1,200~1,300\$/톤
 - * 절편압착 건고추 수출가능 가격은 CFR기준 4,000\$/톤(신강 대장산은 16,500위엔(2,600\$)/톤, 금탑 품종은 18,000위엔(2,800\$)에 거래), 금탑(한국 선호품종) 원료확보는 어려우며, 익도 품종은 CFR 3,000\$/톤
- 한·중 FTA를 대비하여 고추 주산지 계약재배를 확대계획이며, FTA를 추진할 경우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나, 수출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일부 수출업체는 향후 건고추 물세척기를 도입하여 한국의 품질수준에 맞는 양질의 품질 생산계획

1) 중국현황은 수출업체의 조사내용을 위주로 작성함.

나) 마늘

○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6% 감소, 생산량은 25~30% 감소

- 중국 마늘 품종은 소프트 90%, 하드 10%(창산지역) 수준

- 통마늘수출단가는 FOB기준 톤당 1,400~1,500\$, 깎마늘은 1,500~1,600\$

* 농가 수취가격이 톤당 5,600~6,000위엔(880~940\$), 저장비가 600~800 위엔(94~125\$), 선별·포장·운송비가 1,500위엔(240\$) 내외임

○ 금년 중국산 마늘 수매가가 상승하였고, 가격등락이 심하였음

- 재배면적감소와 작황부진이 주요인이었고, 금년 3월 재고가 부족하였고, 대형 저장업체 2개소에서 투기성 저장을 추진하여 금년 3월 가격이 상승하였음

* '11년산 재고가 10만 이월(평년 이월은 25~30만톤)

* 금년 5~6월 중국 마늘 수매가는 7.6위엔(1,450원)/kg이었으나, 6월 중순 이후 4.8위엔(910원)으로 하락, 가격인하에 따라 농가에서 판매를 기피

○ '12년 중국 마늘 공급량은 305만톤으로 '11년 390만톤 대비 22%수준 적음

* 중국은 마늘 공급 가능량의 50%수준을 수출

○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금년 저장종료시점이 지연됨

- 저장종료시점: (작년)7.20일 경→(금년)8월 말 예상

다) 양파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20%, 단수가 30% 감소하여 생산량이 50%내외 감소하였음
- 포전거래 비율은 40~50% 수준이며, 거래금액은 2위엔/kg(380원)으로 작년보다 2배 상승
- * 양파 생산비는 1무(200평, 생산량 5~6톤) 당 1,600위엔(250\$) 수준
- 작년 양파 수출가격은 톤당 300\$로 농가 구매가가 800~1,200위엔(125~190\$)/톤, 저장·운송비가 600위엔(95\$)/톤임
- * 중국의 양파주산지는 감숙성과 산둥성으로 감숙성의 경우 현재 양파 생육기로 수출단가 파악이 곤란하며, 대부분 상인이 소유하고 있음.

(3) 한·중 FTA관련 중국 연구현황(청도농업대학-이명권교수)

- 한·중 FTA관련 연구논문은 많지만, 농업분야나 개별품목만의 연구는 많지 않음
- 그간 한국은 농산물 개방 폭이 미미했고, 상대적으로 미국과는 그 폭이 컸으나 15~18년 장기간 관세를 점차 감축했으며, ASG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음
- 중국의 인건비,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상승하는 추세이며, 위엔화의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 등에 악영향으로 작용
- 위엔화의 평가 절상은 수출업계의 저항으로 둔화될 전망

○ 중국은 정치적 영역확보를 위해 한국과 FTA체결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에 많은 것을 양보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

- 한·미 FTA체결에 따른 한중 농산물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연구논문 요약>

(한중일 농산물 무역관계 및 각국의 FTA에 대한 영향)

○ 한·중 농산물 무역규모가 확장될수록 중국은 무역흑자, 한국은 무역적자 확대

- 한국 수입액 10%증가 시 한국의 무역적자 9% 발생

○ 한중일이 농산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의 상호보완관계는 중-일이 가장 강하고 한-중에서 취약하며, 수출경쟁력이 강함
한-일간 보완관계는 중-일, 한-중과 비교하면 차이가 큼

- 따라서 한-중 FTA체결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중국은 22개 품목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은 3개 품목정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중국수출이 확대될 것임(중국의 가공식품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국과 한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

○ 일본은 중국과 한국 양국 공통의 농산품 수출시장임. 중-한 농산품의 대일수출의 비교우위지수는 비슷하며, 중국농산물

의 경우 가격 우세가 뚜렷하나, 안전성문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한국의 기 체결 FTA에서 농산물 무역규칙 분석)

- 농산물 개방에 한국은 보수적입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접근성과 기후적 조건의 유사성 때문이며, 한국은 각종 구제조치를 둬으로써 농산물을 개방도를 낮추려 함.

III. 종합

1. 시사점

<공통>

- 중국의 농가당 재배면적이 소규모이나, 산지가 집단화 되어있고, 경지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어, 향후 기계화 도입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농업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중국 내 수요증가로 전반적인 채소가격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와 비교해 생산비가 낮아 무관세로 들여올 경우 가격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중 FTA를 대비하여 업체나 농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없으나, FTA체결 후 대한민국 수출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
 - 곡류(밀)와 면화를 재배할 경우 정부지원, 경제작물은 미지원
- 중국의 기체결된 FTA를 보면, 자국 내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 곡분, 당류 및 유지류와 담배 등은 민감품목으로 양허하였으나,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

-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FTA에 있어서 서비스, 공업분야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양념채소류에 대한 한국의 양허 제외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장류와 가공식품의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한·중 FTA체결 시 한국산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가능
- 중국 내 식품관련 사고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중국내 한국식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

<건고추>

- 건고추 안전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출업체에서는 대한민국 수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의지를 보임
- 기존의 에어세척기에서 물세척기로의 교체를 통해 세척
- 건고추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산 가격은 국내산의 29%, 냉동고추는 7%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KREI)

[건고추 가격 경쟁력 비교]

단위: 원/kg

구 분	연 도	국내산	중국산(건고추)		중국산(냉동고추)	
		가 격(A)	가 격(B)	비중(B/A)	가 격(C)	비중(C/A)
현행관세 (건고추: 쿼터내 50% 냉동고추: 27%)	2007년	8,208	3,605	0.44	634	0.08
	2008년	7,753	3,674	0.47	852	0.11
	2009년	8,971	3,668	0.41	838	0.09
	평균('07~'09)	8,311	3,649	0.44	775	0.09
무관세	2007년	8,208	2,403	0.29	499	0.06
	2008년	7,753	2,449	0.32	671	0.09
	2009년	8,971	2,445	0.27	660	0.07
	평균('07~'09)	8,311	2,433	0.29	610	0.07

주: 국내산 도매가격은 건고추 화건 중품 기준이며, 수입산 가격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 CIF+ 관세+ 통관제비(10%)로 추정 산출됨.

자료: KAMIS, GTA.

<마늘>

- 중국산 간마늘의 경우 쿼터 내 물량의 경우 '07~'09년 평균 가격으로 국내산의 54% 수준이며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국내산의 36%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됨

[간마늘 가격 경쟁력 비교]

(단위 : 원/kg)

구 분	연 도	국내산	중국산	
		가 격(A)	가 격(B)	비 중(B/A)
현행관세 (쿼터 내 50%)	2007년	3,391	3,091	0.91
	2008년	2,898	940	0.32
	2009년	3,017	980	0.32
	평 균('07~'09)	3,102	1,670	0.54
무관세	2007년	3,391	2,061	0.61
	2008년	2,898	627	0.22
	2009년	3,017	653	0.22
	평 균('07~'09)	3,102	1,114	0.36

주 : 국내산 도매가격(간마늘 중품 기준)

수입산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 CIF++ 관세+ 통관제비(10%)로 추정 산출

자료 : KAMIS, GTA

<양파>

- 국내 수입되는 양파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TRQ 물량으로 수입됨
 - TRQ내에서 수입되는 신선양파는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TRQ 물량 외에 민간에서 수입하는 신선양파는 135%의 관세가 부과됨
- 현재 TRQ 쿼터내 수입시에도 국내산 가격의 77%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시에는 중국산은 국내가격의 51%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양파 가격 경쟁력 비교]

(단위 : 원/kg)

구 분	연 도	국내산	중국산	
		가 격(A)	가 격(B)	비 중(B/A)
현행관세 (쿼터내 50%)	2007년	494	494	1.00
	2008년	629	467	0.74
	2009년	721	458	0.63
	평 균('07~'09)	615	473	0.77
무관세	2007년	494	329	0.67
	2008년	629	312	0.50
	2009년	721	305	0.42
	평 균('07~'09)	615	315	0.51

주 : 국내산 도매가격(중품 기준)

수입산은 한국의 대중국 신선양파 수입 CIF++ 관세+ 통관제비(10%)로 추정 산출

자료 : KAMIS, GTA

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양념채소류 산업의 영향

<공통>

- (지리적 수출의 유리성) 중국의 양념채소류 주산지인 산둥성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수출물류비가 낮아 관세하락으로 인한 수입가능성은 매우 큼
- (중국산 상품의 품질 우위성) 안전성만 확보 된다면, 상품 자체의 품질은 좋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한국이 요구하는 품질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을 위한 노력이 있음
- 중국산 양념채소류 국내시장 수입 시 국내산업 전망
 - 국내 농가 판매가격 하락 → 농가 수익성 하락 → 재배면적 감소 → 생산량 감소, 품질하락 → 밭 이용을 하락 → 국내 자급을 하락 → 양념채소산업 붕괴 가능성

- (장기적으로 중국산 양념채소류의 가격경쟁력이 낮을 수 있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으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자급률이 하락하고 산업이 붕괴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이 낮을 수 있음

<고추>

- 2010년 기준, 중국산 냉동고추(관세 50%)의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74%를 차지하고 건고추와 고춧가루 형태는 고율관세(270%)여서 전체 수입량의 26%에 불과함.
-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고율관세(270%)로 수입되는 건고추의 비중이 냉동고추의 비중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럴 경우, 수입 후 해동하여 건조시키는 냉동고추의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내산 고추 가격의 33%인 냉동고추 가격보다 더 낮아져 건고추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마늘>

- (마늘 부산물 수출 가능성 큼) 중국은 마늘 소비는 주로 마늘쫑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어 마늘씨는 부가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도 수출 가능성이 큼